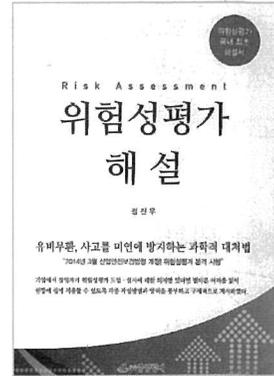


위험성평가 해설

정진우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저 / (주)중앙경제 / 2014.5.9



본서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저자가 종전의 쓴 책 ‘알기 쉬운 위험성평가(2013)’에 제조·설계단계의 위험성평가 내용 등을 추가하고, 본서의 당초 집필취지에 맞게 위험성평가의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론적 정합성을 높이는 등 종전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새롭게 출간된 것이다.

저자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산업안전보건이론과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에 누구보다 깊은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학자에 가깝다. 그 동안 세상에 내놓은 3권의 책 모두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책들이므로도 이를 알 수 있다.

본서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최초의 기본서이자 해설서라 할 수 있다. 본서에는 위험성평가의 사고논리, 개념·의미와 실시방법·절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해설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현장 관계자와 안전보건기관, 학계 관계자, 학생들에게 위험성평가의 개설서로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ISO, ILO, OHSAS, ANSI 등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위험성평가, 즉 위험성평가에 관한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위험성평가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의 주제인 위험성평가는 많은 국가에서 표준적인 안전관리기법이자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현재 국제안전규격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즉,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안전보건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이자 기법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험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위험성평가라는 말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부터 혼란스럽고 실시방법 또한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그간 우리사회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거대담론식의 논의만 전개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나 논의가 되어 오지 못한 결과이다.

다행히 2013년 6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으로써 위험성평가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위험성평가 자체 및 그 실시내용·결과의 기록·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도 구체적 조항으로 규정됨과 아울러, 실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지침(고시)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위험성평가가 포함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바야흐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험성의 사전평가이다. 즉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다. 위험을 수반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부지불식간에 무엇인가 위험성평가에 상당한 것을 하게 된다. 다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망라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 따름이다.

위험한 것을 미리 발견하고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판단하여 그 판단의 크기에 따라 확실히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진정한 의미이다. 유비무환, 즉 미연방지의 과학적 대처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험성평가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세계의 안전표준과 동일한 안전관리기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한 상태이다. 위험성평가가 많은 사업장에 보급되어 보편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위험성평가가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형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본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데 있어, 매뉴얼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 않는다.

본서는 전체 아홉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위험성이란?

위험성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국제안전규격으로 보는 위험성의 정의와 위험성의 의미, 안전과 위험성에 관한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 위험성평가의 기본

위험성평가의 역사 및 의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등의 개념·의미, 위험성평가의 기본적 절차, 위험성평가와 위험성관리의 관계, 설계제조자와 사용자 간 위험성평가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장 위험성평가의 실시체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체제의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 절차별 실시자,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서의 작성, 교육 실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4장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

이 장에서는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의 의미와 방법(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것 포함) 위험성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제5장 위험성 결정

먼저 위험성 결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정의를 이론적으로 상세히 분석·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로서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의 원칙을 이론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6장 시범실시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위험성평가 준비단계로서 위험성평가 시범실시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시범실시 후의 단계로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주지 및 재검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7장 위험성평가의 준비단계

위험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대상을 정한다. 그리고 위험성평가 사전작업으로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관련정보를 입수한다. 마지막으로 연간 안전보건계획과 위험성평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8장 위험성평가의 실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의 진행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위험성 추정 및 그 진행방법, 위험성 감소의 우선도 설정과 감소조치의 검토·실시 및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 운영 시 전반적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9장 기록·관리 및 검토·수정

작성·보관이 필요한 기록의 범위, 기록의 종류, 작성한 기록의 관리·활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험성평가 관리대장의 작성, 잠정대책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 관리 시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 및 수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서에는 참고자료로 작업의 양태(정상작업과 비정상작업), 유해위험요인의 예, 위험성 감소효과의 예측방법, 잔류위험성의 개념 등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중요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